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운영기관 공모 심사 결과 안내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운영기관 공모」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심사결과: 총 1,204건 중 총 860건 선정 (예비 60건)

단위: 프로그램

구분	길 위의 인문학		지혜학교	합계	비고
	입문형	기본형			
선정규모	100개	500개	260개	860개	*한국도서관협회 협력운영
최종선정	100개	500개	260개	860개	
예비선정	17개	26개	17개	60개	

※ 자세한 선정결과는 붙임 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1]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선정기관 명단 ※ 지역, 기관명 가나다순
 [붙임2] 2026 길 위의 인문학·지혜학교 예비기관 명단 ※ 유형별 우선 순위순

□ 심사총평

-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인문사업에 대한 운영기관의 의지와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적 가치와 지역성, 사회적 맥락을 충실히 반영한 기획인지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음. 특히 단순 일방향 강의 중심의 운영보다 참여자와의 소통, 성찰 등을 기반으로 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높게 평가하였으며, 기획의 충실성과 참신성 또한 주요 평가 요소로 고려하였음
- 아울러, 인문에 대한 고답적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계층·사회적 이슈와 연계하여 인문적 성찰과 실천으로 확장하고자 한 기획을 높게 평가하였음. 참여자의 특성과 성장 과정을 반영한 프로그램 구성, 참여 중심의 운영 방식, 문제의식과 사업 목적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기획을 주요 강점으로 평가하였음
- 다만, 일부 프로그램은 인문적 가치와 문제의식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거나, 참여자의 성찰과 소통을 이끌어내는 과정 설계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음. 또한 기존 사업에 인문 요소를 단순 결합하거나 기능·지식 전달 중심으로 구성된 경우 사업 취지와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검토되었음. 향후에는 기관과 참여 대상의 특성을 반영한 주제 발굴과 함께, 참여자의 삶과 연결된 질문과 성찰을 확장할 수 있는 인문적 경험 설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심사위원 ※ 가나다순

- 강현조, 권운영, 김경애, 김나영, 박수희, 성해영, 신혜선, 심한기, 염신규, 오재호, 오정숙, 우지연, 유상진, 이경진, 이보라, 이재민, 이지연, 이찬규, 정수희, 조현성, 최미숙, 추미경, 황재문

□ [향후 일정] 오리엔테이션 안내

- 추진일정: 2026. 6. 10.(수) ~ 6. 15.(월) 중 1회 선택 참여
- 추진방법: (대면)서울·대구 및 비대면 1회 ※세부 일정 및 장소 별도 안내
- 참석대상: 선정 운영기관 담당자 1인(필수)
- 주요내용: 사업 안내, 운영지침 및 교부신청서 작성 안내 등

□ 참고사항

- 최초 선정 운영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중도포기 시, 우선 순위에 따른 예비 후보 선정 (별도 연락 예정)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포기 시, 차년도 사업 참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 기관이 당해연도 사업 수행 중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유로 기소 되는 경우,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기소 연도 사업’ 뿐만 아니라 ‘당해연도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취소 및 환수될 수 있음

□ 관련문의

도서관	
↓	
한국도서관협회	
(이메일) inmunroad@naver.com	(유선) 02-535-4451

생활문화 및 사회시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메일) inmun@arte.or.kr	(유선) 02-6209-1361